

북한의 SLBM 발사시험과 우리의 대응책

I. 서 언	1
II. 발 제	2
III. 토 론	4
IV. 종 합	13

■ 주제 발표 : 김종민 제독

■ 사 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이서항 박사

■ 일반토론 : 류지현 제독 문근식 국장
 박창권 박사 양정승 박사
 윤석준 박사 이상민 박사
 이정훈 기자 이춘근 박사
 임인수 제독 정동조 제독
 정삼만 박사 (가나다 순)

■ 편 집 : 문근식 국장(전 잠수함 함장)

■ 일 시 : 2015. 5. 26. 10:30~13:00

■ 장 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I. 서 언

북한이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은 불안 해 하고 있다. 도대체 SLBM 수중발사시험이 무엇이고 어떠한 위협이 있기에 국민들은 불안 해 할까? SLBM 수중발사 시험은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여 전력화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기에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후 이를 잠수함에서 발사 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그 위협이 가중된다.

이는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고 언제 어디서라도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더욱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군비를 증강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핵무기 개발이며 그 노력이 이제 정점에 와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의 능력은 최대한으로 보아야하고 우리의 능력은 있는 대로 보고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북한이 SLBM개발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만큼 그들이 성공하겠느냐 아니면 쇼가 아니냐 또는 5년 이내는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등등 안일한 대응을 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북한은 이제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함으로서 우리 뒤통수에 비수를 대고 24시간 위협을 가하려 한다. 북한이 비수를 꺼내 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토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먼저 잠수함 전 단장을 역임한 김종민 제독의 발제 내용을 들어보고 SLBM의 실제적인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자유 토론을 하겠다.

II. 발제 : 북한의 SLBM 발사시험과 우리의 대응책

1. 상 황

북한이 19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에서 퇴역 골프급 잠수함을 고철로 사들여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과 수직 발사관에 대하여 연구해온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이러한 연구 현상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SLBM 지상발사 시험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드디어 2014년 미국의 38 North에서 그 모습을 위성으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15년 5월 8일에는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북한 신포 앞 해상에서 SLBM 발사 시험을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또는 4-5년 후 SLBM 탑재 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SLBM의 위협과 대응책에 대하여 토의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2. 대응책

SLBM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는

- ① 대잠작전 개념의 재설정
- ② 대잠전 융합작전센터 설치
- ③ 대잠전 무기체계 발전 분야이다.

먼저 대잠작전 개념의 재설정분야인데 역시 3단계로 설명하고자한다.

- 1단계는 전략수준의 대잠전 단계로서 적 잠수함기지 24시간 감시 및 정찰, 전시 선제 타격, 정찰위성에 의한 지속감시, UAV·잠수함에 의한 감시, 조기경보기, 통신감청, 유사시 정밀폭격 등이며,
- 2단계는 작전적수준의 대잠전으로서 광역해역 수중조기경보, 해상초계기, LINE ARRAY, 정보수집함, 잠수함, 대잠함 등에 의한 잠수함 이동정보수집 및 전파이고
- 3단계는 전술적 수준의 대잠전으로서 이는 대잠함, 대잠헬기, 잠수함 등에 의한 추적 및 격침이다.

두 번째로 대잠전 융합센터 설치는 효과적인 연합·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로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해볼 수 있다. 이는

- ① NETWORK CENTRIC ASW
- ② 한·미 연합 대잠전계획 발전
- ③ 한·미연합 통합 전력 발휘체계연동

등이며 여기서 NETWORK CENTRIC ASW는 적 잠수함 정보 DB구축, 각종 대잠센서 정보 융합, 분석, 판단, 결심, 시행 등 실시간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방안이고 한·미 연합 대잠전 발전분야는 적잠수함 정보 융합, 분석, 대응, 한·미 잠수함 전력 운용 그리고 대잠전 연합훈련, 교리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 통합 전력 발휘 체계 연동은 4D, KAMD, KILL CHAIN 통합하여 연동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잠전 무기체계 발전 분야는 비교적 장기간에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다중 수중탐지수단, 고성능 해저수중 감시 체계, TAS(잠수함, 수상함, 정보함 용 등), MFTA, 저주파 고효율 HMS, 능동, 수동 소노부이, 저주파 DIPPING 소나, MAD, 레이저, 잠수함용 선체부착소나, SAR, IR 레이다, 감시정찰위성, UAV, 이지스 탄도탄 감시체계, 공격용 무기, 고속순항유도탄, 탄도탄, 요격용유도탄(SM-3등),수상함 용 성능개량어뢰(경어뢰, 홍상어 등), 잠수함용 성능개량 고성능어뢰, 항공기용 성능개량어뢰, 수상함, 항공기용 고성능폭뢰, 대잠함(이지스구축함 포함), 해상초계기(P-3, S-3, 헬기 등), 잠수함(장보고-1 성능개량, 장-2, 장-3, 원잠)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3. 단·중·장기 대잠전 해결과제

상기 제시된 대응책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측면에서 사실상 어려우므로 가능한 분야부터, 시급한 문제부터 선별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잠환경 평가분야를 제시한다면 천해, 대륙붕, 심해 등 수중 환경하 음파손실연구, 다량의 해상교통량 하 다수, 고도의 비대칭 적 잠수함 연구 등이며, 단기간 보완발전 분야는 신속 데이터 처리 및 융합, 다중상태 예인 ARRAY, 저주파 ARRAY, 전진전개 수중 감시, 첨단소노부이 개발 등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분산탐지 체계의 네트워크 화, 요격, 신속공격무기, 지속 감시 체계 개발, 첨단 데이터 중계 공유, 무기의 통합운용(센서+C4I+플랫폼+정밀유도

무기) 등이며 전력운용 분야는 지속적, 상시적 조기경보 체계, 신속 작전 템포, 신속한 기술 적용, 전술, 교리 개발 등이며 개발 우선순위는 탐지장비, 네트워크, 공격무기, 플랫폼 순이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든다면 적 연구, 상시 감시, 센서 네트워킹, 데이터 프로세싱, 정보공유, 연합, 합동 전력 운용, 광역 해역 감시, 탐색, 신속, 정확한 위치 확인, 원거리 정밀 공격, 신기술 신속 적용, 다중방어, 그리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시도해야한다.

III. 토 론

● 사회자

SLBM의 위협과 대응책에 대하여 발제자의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는 내용을 잘 들었다. 이제 발제자가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진행하되 위협의 실체와 대응방안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기 바란다.

● 토론자 A

북한의 SLBM 발사시험은 핵 소형화 노력과 함께 핵무장화 행보의 마지막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상에 있는 탄도탄 발사체들이 아군의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나 미사일 방어체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탄은 높은 생존성으로 북한은 제2 타격 능력을 갖게 되며, 이 발사체에는 궁극적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장대로 SLBM 발사시험이 실제로 성공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1990년대에 구소련의 퇴역 잠수함 12척을 고철로 해체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직간접의 기술축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동안 유도탄 개발에서 보인 성과로 보

아 발사시험 자체는 성공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SLBM 개발은 원자력 동력의 개발과 시차가 별로 없이 진행되었다. 1954년 최초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노틸러스가 항해에 성공한 이후 이듬해부터 추진한 SSBN(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프로젝트는 1960년에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하고 그 해 11월부터 작전을 개시했다. 이렇듯 ‘제 2 타격능력’으로서의 SSBN은 무제한의 잠항능력과 결합하여 발전된 개념이다.

SLBM을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는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 보고서는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에 두 가지 임무 형식을 상정하고 있다. (Koh Swee Lean Collin, <How to Demolish the North Korean Submarine Missile Threat>, The National Interest, 2015. 5. 18.):

- ① Suicide Mission - 피탐지를 각오하고 위기발생시 동해상 지정된 위치로 이동 탄도탄 발사하며 이때 표적은 주일 미군기지
- ② 은익작전 - 북한해군의 자체 방어능력 부족으로 원거리 작전은 불가하다고 보고 도서에 숨어서 일본 미군 기지나 남한 주요 표적을 타격한다는 것인데 SLBM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임무도 다양하게 변형될 것이다.

어떤 운용방식이 되든 SLBM에 대한 대응은 어려운 문제다.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발사체를 선제 타격할 기회는 제약된다. 또 육상 발사대와 달리 어디서 발사될지 알 수 없어 발사된 SLBM을 탐지 - 파괴하기가 육상 발사대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한미연합의 미사일 방어와 대잠전의 개념을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미 자산으로 징후감시체계의 상시 가동 - 위성, 무인기, 대잠 공중초계 등이 필요하다.

SLBM탑재 잠수함 출항 시부터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잠수함에 의한 적 기지 근접 수중초계(이를 위해서는 AIP 이상의 잠항지속 능력을 갖는 잠수함이 필요 - SSN 필요)와 대잠초계 능력을 보완해야하며 지금이야말로 한국 해군이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으로 기동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해야한다는 논리를 주장할 때이다. 만

일 미국이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의도에 대하여 반대한다면 퇴역 LA급 잠수함의 임대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북한 SLBM탑재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우리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합작전 수준을 발전시켜야함도 강조해야한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한미일 공조(Bruce Klingner - 헤리티지 선임연구원, <The Growing North Korean Missile Threat>, The Daily Signal, 2015. 5. 17)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SLBM위협을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 토론자 B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1호는 구 러시아 콜프급 잠수함에 탑재되었던 SS-N-6미사일(R-27핵탄두)과 크기와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SLBM은 거의 완성된 단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남은 SLBM 실탄 발사 성공 시 그 위협을 평가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주었던 충격과 위협 이상으로 평가한다. 모든 디젤 잠수함 보유국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원자력 미사일 잠수함(SSBN: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Nuclear)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 잠수함이야말로 현존 최강의 무기체계로서 강대국간 핵전쟁을 억제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위상을 표시하는 무기체계로 자리매김 하였다.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이제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세계에서 7번째(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다음)로 SLBM을 발사하는 군사 강대국 반열에 끼어 들고 있고 그 위협을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할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 할만하다. 이 정도의 위협이면 북한의 SLBM개발 성공은 기정사실로 보고 대비해야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대잠전 개념의 재설정 분야에서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몇 가지 첨언한다면, 발사플랫폼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SLBM 탑재 잠수함의 위치에 따라 대응방안을 다르게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먼저 SLBM탑재 잠수함이 잠수함기지 또는 지하함정 대피소에 있을 때는 기존의 킬 체인 타격대상으로 잠수함기지과 지하 함정대피소를 포함하고 공격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야한다. 여기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하함정대피소에 있는 잠수함을 어떻게 식별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일단 SLBM탑재 잠수함이 항구를 이탈한 후에는 단·장기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우선 단기방안으로

① SLBM탑재 잠수함 기지 주변에 대하여는 비교적 은밀성과 생존성이 우수한 우리의

AIP 탑재 잠수함으로 출항을 감시하고 출항 시부터 추적하게하며

- ② 추적 중 SLBM발사 징후 포착 시에는 현장에서 격침 또는 아 해역의 대잠 초계세력 및 KAMD 운용부대에 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장기방안으로는 단기 방안에 추가하여 수중 무제한 기동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조기 건조하여 선진국처럼 SLBM 탑재 잠수함 출현 예상구역을 상시초계하다 추적 및 감시 작전을 수행해야한다. 대잠전 융합작전센터 설치관련 제안하신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하고 싶은 의견은 AIP탑재 잠수함(향후 확보 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합참의장 이상의 국가 통수권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서 위상을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평시 작전권 이양 문제와 결부하여 미국에 의존 및 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적 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 활동영역을 확대시켜야한다. 잠수함은 적 해역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합참에 잠수함 상황실을 설치하고 잠수함 사령관과 실시간 적 상황을 감시하고 추적하며 적 정보를 실시간 전파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제격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디젤잠수함을 폐기처분하고 원자력 잠수함만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자력 잠수함의 능력과 보유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방사청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단을 신설하여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전력해야한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은 2017년까지 원자력 잠수함을 전력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시작해도 8~10년 후 확보 가능하다. 북한에 뒤지며 일이 터질 때마다 뒷북 치는 일은 이제 그만 할 때이다.

●토론자 C

북한이 SLBM사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마디로 조작된 넌센스라고 생각했다.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런 기술이 없다고 본다. 또한 일각에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SLBM탑재 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 또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제작기술이 아직 없을 뿐더러 한

미 원자력 협정에서 군함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농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토론자D

토론자 C가 지적한 “북한은 SLBM탑재 잠수함 개발 능력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은 이미 1994년부터 러시아의 골프급 잠수함을 고철로 사들이며 러시아 기술자들을 대거 입국시켜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금번 발사 정보를 분석한 결과 SLBM은 러시아의 R-27과 비교 시 사정거리, 핵 탑재능력, 핵탄두 탑재 공간 등에서 R-27과 거의 유사한 모양과 크기이다. 북한은 미사일 제원이 바뀌면 많은 시험발사와 사출장치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러시아의 R-27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사출 시험은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신포급에 1기를 탑재하는 그야말로 북한식 SLBM의 전형으로 판단되며 그 전력화 시기는 1-2년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잠수함 제작국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잠수함 한 척에 핵무기 1기만을 탑재하는 북한은 언제 어디서 어떤 짓을 할 지 모르는 집단이다. 이제 핵무기를 소형화 했으니 점진적으로 이를 다량으로 발사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중기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계획하여 전력을 건설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한 마디에 전 국민이 움직이고 가용예산을 모두 쏟아 붓는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의 군사 능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발제자가 발표한 분야에 대부분 동의 하지만 재원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다. 재원확보가 불투명할 때는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상황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적 SLBM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파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하루 빨리 건조해야 한다.

● 토론자 E

토론을 들어보니 북한 SLBM탑재 잠수함의 위협이 현실화 된 것 같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자의 입장일 경우 어떤 방패로도 창이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어렵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막아야 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데 대하여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이 핵탄두를 싣고 다닌다면 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 SLBM 탑재잠수함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토론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이러한 임무를 수

행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다.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같은 모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원자력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무기를 싣고 바다에 나가는 잠수함은 대부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추적하여 감시해야한다.

● 토론자 F

일반적으로 북한의 SLBM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 SLBM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대내외적인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자신의 핵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정보 검토 및 분석이 긴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SLBM 대응을 위한 발제자의 중장기적·종합적 대응방책에 대하여 동의하나 감시·정찰·식별등 감시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적인 노력 요구된다. 북한 SLBM이 북한 핵전력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고려 시 우리의 대북 핵억제 전략 차원의 대응방안도 동시에 검토가 필요하다.

- Kill Chain과 KAMD
- 응징보복에 의한 대북 핵억제 전략
- 중국의 SLBM 능력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대잠작전 능력 사례, 미·러간 SLBM 관련 대응전략과 수단 등

● 토론자 G

우선 토론의 대전제는 향후 북한이 장착하게 될 SLBM은 반드시 핵탄두를 장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SLBM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경우 폭발력은 1kt 내외로서 고작 건물 하나 정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잠수함을 이용,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SLBM을 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little boy'나 'fat man'의 위력의 10배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걱정하고 공격하려 들면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우리의 실정이다. 특히 탄도탄을 이용, 그것도 잠수함을 이용하여 핵탄도탄을 발사한다면 이를 방어하는 게 힘들 뿐 아니라 완벽한 방어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비대칭적 수단과 전략을 더욱 추진, 우리의 자원소모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공격력과 방어력의 균형을 갖추어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Balance of power 방식이다. 결과로서 전략적 안정, 억제는 이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걸 북한이 바로 원하는 바일 것이다.

따라서 냉전 시 미소가 한때 적용했던 Balance of terror 전략을 이용하면 북한의 SLBM이나 ICBM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소 간 채택했던 공포의 균형은 일종의 MAD(상호확증파괴)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전략에선 상대가 보유한 창(ICBM)만큼 동수의 창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핵의 위력을 고려할 때 상대를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창만 있으면 되었다. 즉, 더 적은 비용으로도 상대의 공격력을 억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략이 핵심이었다. 북한의 COG는 확실하게 식별가능하다. 김정은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North Korea leadership이다.

만약 북한이 SLBM을 이용한 대남도발을 감행하면 준비된 세계 최강의 한국판 델타포스를 투입, 그의 목을 베어오면 된다. 일명 Decapitation(참수)전략이라고도 한다.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 김정은에게 최대의 공포를 안겨줄 수 있는 전략이다. 물론 이 전략은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에게 적용하여 실패하였지만 북한에게는 딱 들어맞는 전략일 것이다. 맞 대응식 전략 혹은 따라 잡기식 전략보다는 전략의 외연을 과감하게 확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된 SLBM탐제 잠수함이 일단 기지를 출항하여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김정은의 목을 베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제 김정은이 비수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우리를 24시간 겨냥한다는 의미이다. 이 비수를 들이대지 못하도록 이를 상시 추적하고 감시해야한다. 물속에서 이를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원자력 잠수함밖에 없다. 원자력 잠수함의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

● 토론자 H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다방면에 걸쳐 연구한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제안한 내용 중에는 단기간 내 실현 곤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김정은 참관 하에 SLBM 사출 시험을 한 것은 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대 내외에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감시 자산이 발달 되어 있어도 잠수함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찾아내기 힘들다. 잠수함이 기지를 출항하기 전에 식별하고 필요 시 킬체인을 활용하여 타격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출항하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잠수함을 이용하여 추적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없을 때보다는 훨씬 어렵다.

우리의 잠수함을 이용하여 북한 잠수함이 출항할 때부터 감시 추적하고 있다면 그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목표지를 향하여 유도탄을 겨냥하고 활동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우리가 북한 잠수함을 수중에서 은밀하게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해군은 10여 년 전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려다 뚜렷한 명분과 주장도 없이 개발을 중단했다. 이는 전적으로 해군 수뇌부의 의지 부족이었다. 북한 김정은은 2017년까지 원자력 잠수함을 전력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외압이라도 뚫고 나아가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을 감시 추적해야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는가? 아직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만 바라는가?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IAEA와 미국에게 당당히 통보하고 국민의 응원 속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도록 박차를 가해야한다.

● 토론자 I

북한의 SLBM의 위협은 기존의 MD시스템으로 탐지 및 격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 발사 핵 미사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제자가 제시한 적 잠수함 기기 24시간 감시 및 정찰, 전시 타격, 한·미 연합 통합전력 발휘체계연동(4D, KAMD, KILL CHAIN) 등에 동의한다.

이러한 대응책과 더불어 우리는 방위전략을 공고히 수립해야하며 북한 침략 시 보복 전력으로 응징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북한의 침략 행위를 자제시키고 만일 남침 시 이를 수세적으로 방어하다 역습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야한다. 만약 북한군이 핵 또는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발사대 및 근원지를 선제 타격하여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는 선제공격 전략을 수립해야하며 특히 SLBM의 모체인 잠수함 그리고 그 근원지인 적 잠수함 기지 무력화 하거나 기뢰에 의해 잠수함기지를 봉쇄해야 한다. 문제는 잠수함이 출항하여 물속에 들어간 이후인데 이는 여러분들이 발표한대로 잠수함을 이용하여 추적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차제에 북한 잠수함을 은밀하게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기동성이 뛰어난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추적 감시하려면 속력이 북한 잠수함보다 1.5~2배 정도 되어야한다고 한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원자력 잠수함만이 가능한데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이 잘 이해한다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토론자 J

북한 SLBM탑재 잠수함의 위협은 기지출항 이전부터 감시되어야하며 대양으로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세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철통 감시를 해야 한다. 발제자가 제시한대로 SLBM탑재 잠수함이 잠수함기지 내에 있을 때에는 연합감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감시하고 필요 시 타격이 가능하나 일단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문제다. 여러분들이 발표한대로 물속에 들어간 잠수함은 잠수함에 의해 추적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우리의 월등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아 해역에 침투를 두려워하도록 철통 감시를 해야 한다. 즉 적기지 주변은 잠수함에 의하여, NLL근해는 수상 전투함과 대잠 초계기 그리고 적 잠수함 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초크포인트나 아 주요항만 근해는 해저탐지센서, 수상 전투함, 대잠 헬기 등을 활용하여 감시해야한다. 한·미 연합작전에 의해 적 잠수함을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으로 적 잠수함의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전력인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확보해야한다.

V. 종합

지금까지 북한 SLBM위협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대응방안 중 가장 많이 토론된 이야기는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여 SLBM 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다음이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고 유사시 KAMD, KIL CHAIN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대잠작전 개념발전 및 탐지체계의 꾸준한 개발 필요성 등이었다. 문제는 시간과 예산인데 향후 전력 건설 우선순위 조정과 대응책을 결정하는 데 오늘 토의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잠수함은 국가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전략 무기로서 전·평시 그 임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년 2월 우리해군의 잠수함함대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잠수함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첨단 무기체계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지도자들과 안보관계관들의 잠수함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한층 요구된다 하겠다.